



평가원 파헤치기: 2021 6월 분석

## # 6월 모의고사 분석

총평 Comment: 지역지리 5개, 정말 쉬운 시험이지만 평가원의 기초가 일부 보였다.  
올해는 지역지리 기반 문제가 다수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쉬워도 지역지리 출제의지를  
보인 평가원이다.

#1.

ㄱ. 간척사업-영해 확대-> 전형적인 평가원 오답선지.

이제부터 기출을 볼 때마다 평가원의 전형적 오답 선지를 머릿속에 넣어두자. 시간 단축의 핵심이다.

ㄴ. 한일 중간 수역, 한 중 잠정초지 구역의 위치-> 미리 인지

한일 중간 수역은 동해상에서 독도에서 동쪽인 부분과 남해에서 제주도의 동남부 두 지점이 있다.

#2.

정말 쉽지만 교수님들이 되게 좋아하는 유형이다. 지리 표현은 지리통계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그냥 흠칫 했다면 개념책 펴서 다시 찾아보자.

#3.

키워드 문제로 냈다는 뜻=평가원이 내놓고 쉽게 내겠다는 뜻.

나름의 출제 포인트를 잡고 시작했으면 복합 지형도 문제로 출제되었을 것이다.

그냥 같이 붙어 다니는 키워드 점검용으로 확인하면 된다.

① 칼데라는 널 곳이 백두산 울릉도밖에 없기 때문에 오답 키워드로 많이 묶어 낸다.

② '관입' 키워드는 화강암이랑 붙어 다니는 것을 잊지 말 것.

③ 조선 누층군, 해성층, 석회석...=모두 퇴적암 중 석회암 키워드

④ 꽃 vs 만...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해양 비교점을 따로 안 내고 이렇게 후려쳐서 내버린 것이다.

⑤ 육지와 바다의 접이지대=습지, 갯벌=생물 종 다양성 높음, 친 자연.

#4. 중요

평가원의 성선설이 드러나는 문제이다. 오른쪽 표는 고3들 쉬우라고 낸 것이고, 원래는 왼쪽 표와 함께 백지도만 줘도 풀 수 있어야 하는 문제이다.

(가)는 전국보다 성비↓, 중위연령↑, 유소년층 인구비율↓, 순이동 음(-)의 값.

성비가 100보다 낮은 여초 도시는 서비스업 중심의 대도시거나 할머니들이 많이 계시는 깡촌. 중위 연령 높고, 성비 낮고, 유소년층 적고, 사람들 많이 빠져 나간다=깡촌이다.

그런데 여기 출제된 지역 중 진짜 할머니들 많은 깡촌은 고흥밖에 없다. 애매한 여초 중형도시와 같이 꺼넣었으면 순이동과 오른쪽 연령별 성비를 보고서 추론을 했어야 할 것이다. 평가원의 성선설이다. 고흥 빼면 군산(자동차, 자동차 부품), 포항(제철), 울산(공업최고), 거제(조선)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업도시들을 출제했다. 그냥 '너네 이제 대표 공업도시 정도는 위치 알고 있지? 그것들 빼면 딱 노령 대표 고흥 나오지?'하는 평가원이 보인다.

#5.

복합 지형도 문제. 우리는 기공사에서 출제쌍을 다 다뤘다. 화산-용암대지 쌍 지형도 문제. **제발 지형도에서는 해석부터 바로 들어가지 말고 지명을 찾자. 평소에 내지 않던 지형도를 내면 사람은 당황해서 해석이 약간 어려워지기 마련이다. 한라산 한탄강만 보고 그냥 내려가면 된다. 필자는 그렇게 해서 3초 컷을 했다.**

① 오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자. 화산 쇠설구, 응회구, 용암 원정구 등 소규모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지형을 뜻한다.

② 하천 침식으로 인한 협곡은 하천 상류의 협곡의 키워드이다. 수능 끝나면 협곡으로 래프팅 하러 갑시다. 소환사의 협곡 가지 마시고.

③ 제주도에서 왜 전통 취락이 주로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했을까? 바로 튀어나와야 한다. 바로 기반암의 특성 때문에 하천이 복류해서 용천하기 때문에 해안가 쪽에서 물을 얻기가 쉽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피수(강 범람 피하기)와 득수(마실물 얻기)가 쉬운 곳에 살았다. 선지로 나올 수 있으니 알아두자.

④ 한탄강은 절대 건천이나 복류천이 아니다. 논이 있는 충적층지대가 높아서 그렇지 물을 끌어올려서 수리 시설이 있으면 논농사 가능하다. 철원 오대쌀. 생산량도 많으며 정말 맛있다.

⑤ 회백색 성대 토양 X

+쓸데는 없지만 시간 확보에는 도움이 되는 문풀 팁을 하나 주자면, 필자는 '눈훅기'라는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그래서 20문제 5분컷 6분 컷이 가능한거다. 다 안 읽으니까.)

집중해서 내용이 머릿속에서 입력이 되고 프로세싱이 되기 전에 그냥 눈으로 딱 1초도 안 되게 쓱 훑는다. 그러면 대충 키워드들이 머리에 남을 것이다. 이 때, 이 문제 기준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놈이 하나 걸린다. '회백색 성대토'. 바로 ⑤부터 들어가서 정말 내가 이 선지가 틀렸나 개부터 체크해서 조지면 하나하나 확인하는 시간이 줄어든다. 그러나 사탐은 시간이 남는게 인지상정이기 때문에...쓸데는 없을 거다.

#6.

인천 공항 모르면...안 된다. 인천항도 있어서 해운, 운수업 끝판왕이다.

파주는 운정 신도시, 출판의 끝판왕.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웬만한 책들은 다 파주에서 인쇄된 것이다.

포천은 낼 것도 없다. 그냥 경기 외곽 중소도시 아무데나 찍은게 아닐까?

화수용(화성, 수원, 용인)의 화성은 정말 내기 좋은 곳이라서 인구도 외워두고 특징도 외워두자.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 사업장과 함께 그 밑의 협력업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러니 거기에 취직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동탄 신도시까지 있으니 인구특성도 쫄다. 즉, 공업도시+신도시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다.

#7.

평가원이 작성하고 쉽게 내려고 한게 보인 문제다. 그래프의 지역을 빈칸을 뚫지도 않고 다 줬다. 수능 수준이라면 몇 개씩 뚫어놓고 그 지역 간의 다른 지표도 비교할 것이다.

얻어갈 건 딱 하나밖에 없다. 공업-키워드 쌍 얻어가기.

지금 본 김에 개념책이나 연계교재를 피자. 그리고 적환지 지향 공업, 노동 지향 공업 등 공업별 키워드와 그 공업의 키워드 쌍들을 눈에 익혀두자. 언제든지 대놓고 내서 발목을 잡을 수 있는 파트다. 옛날에는 통조림 사업이 어떤 공업이니?라고 물을 정도였다.

#8.

기후 알고리즘이고 뭐고 필요가 없는 3초컷 문제다.

여름 강수량과 기온의 연교차가 나왔는데, 이렇게 지표 두 개 나오면 쉽고 확실한 걸로 뚫어 버리자. 여기서 연교차라고 생각한다. 연교차만큼 어느 곳을 찍어도 직접 비교가 쉬운 곳이 없기에... 거기다 여기서 가 나 다가 완전 위도의 차이가 난다. 위도는 연교차의 가족이다.

① 최한월 평균기온을 물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평가원이 수치를 다 외우라는거 아니야..? 하지는 말자. 수치를 외우는건 평가원이 원하는게 아니다. 적어도 제주도는 우리가 드럽게 많이 공부한 특수값이기 때문에 거기 정도는 최한월에도 온도가 0도 넘는 것을 알겠지 하고 낸 것이다. 물론 그냥 PASS 하는 것도 개이득이다. 이렇게 시간 깎아먹는 선지.

② 정주간 vs 대청마루 vs 구데기. 알아두자.

⑤ 여강집을 대놓고 묻기는 원래 애매하다. 근데 낸 이유는 연강수량(원의 크기)와 여름 강수량을 주었으니 여강집 계산하라는 것이다. 이런 선지야 말로 그냥 확실한 정답 찍고 돌아와서 일일이 계산해서 오답 확률을 0으로 만들자.

#9.중요

대호태(대설 호우 태풍) 내는 자연재해 문제는 그냥 이제 도가 터야 한다 보자마자 7월 높은 놈 호우, 가을 높은 놈 태풍, 겨울부터 생기는 놈 대설. 1초만에 대호태 적고 시작해야 한다. 매우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지만 썩은 느낌이 든다.

정답 선지를 총피해액 비교로 냈다는 것이다. 18 수능이 어려웠던 것도 20번이 어렵기도 했지만 자연재해에서도 직접비교를 시킨 것도 한 몫을 했다. 이제 기공사에서도 다뤘던 자연재해의 본질인 '어디가, 왜, 무슨 자연재해 피해를 많이 입느냐?'를 개 쉬운 문제의 정답 선지로 냈다는 것은, 수능이라는 본게임에서 대놓고 낼 수도 있다는 느낌.

#10.

두 지역이 어딘지 몰라도 적어도 부산에 붙어 있는 부산 근교도시랑 경남에 있는 그냥 일반 도시라고 후려쳐서 풀면 된다. 기공사러들은 항상 후려쳐서 풀기(무슨 지역, 도시, 구 사소하게 따져서 풀지 말고 그냥 촌vs도시, 깡촌vs덜깡촌vs도시 등등)를 연습하자. 뇌가 여기 어디였지? 생각하기도 전에 손이 이미 풀고 있을 것이다.

#11.

역대급 구데기 문제.

사건으로는 '이렇게 에너지도 지역성을 강화에서 낼 것이다'를 예고는 하고 싶고, 코로나 6평이라 어렵게 내면 욕 오지게 먹을 것 같고 해서 평가원이 타협점으로 낸 것 같다.

## #12.완전중요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평가원이 이제는 기본 세팅이 대표적인 도시들은 인구를 외웠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문제를 출제한다는 것이다.

1. 주석 체크를 했어야 했다. 총 인구 규모가 아니라 1등 도시랑 23등의 인구 규모 상대 비교 하는 그래프다. 수 X. 비율 O.
2. 권역별 대표 도시들은 인구를 무조건 알고 있어야 한다. 서울 1000만-인천300만, 부산 350-대구 250만, 대전150만-천안65만.

이것들을 활용해서 1등 도시와 2등도시와의 인구 비율 격차를 통해서

(가)-영남 (나)-충청 (다)-수도권이 바로 나와야 한다. 6평 당시 고3 학생들은 은근히 고전을 면치 못한 것이 인구를 잘 안 외워냈기 때문이다. 이제 주요 인구, 특히 수도권 대형도시와 지방 광역시들은 인구를 100% 암기하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 Refine이 하나 잡힌다. 알아두고 가자. 만약에 이런 문제에서 인구가 잘 기억이 안 나서 헛갈릴 때 어떡하냐면 일단 넘겨두고 간다. 그리고 돌아와서 남은 시간동안 케이스를 다 대입해보는 것이다. 경우의 수라고 해봤자  $3!=6$ 개다. 다 일일이 케이스를 나눠서 OX판별을 하다보면 적어도 O가 하나 나오는 선지는 정답선지 or 매력오답까지 해서 두 개가 될 것이므로 맞힐 확률이 훨씬 올라간다. 심지어 웬만한 문제들은 정답 선지 혼자 남는다.

이 문제에서도 (가)~(다) 각각 총수영(OXOOX) 총영수(OXOXO) 영수총(OXOXX) 수영총(OOOOX) 수총영(XOXXX)로 다섯가지 케이스 중 수총영만 O가 1개이다. 근데 심지어 가장 중요한 (나)=충청 처리는 되어 있어서 원래의 정답과 선지 판별이 똑같다. 그냥 그걸 찍으면 된다.

#13.하천 분수계 그림은 이제 봐두자. 상류의 줄기들이 모여서 하류 하구에서 모인다.

혹시라도 고3들이 이걸 못 해석할까봐 평가원이 얼마나 착하냐면 오른쪽 표에서 하천의 평균 폭을 줬다. 그것만 보고도 상류 하류를 나눌 수 있는 것이다. 평가원은 자비의 대상이니 항상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꼼꼼하게 평가원이 흘린 힌트를 찾아보도록 하자.

## #14

동해, 평탄한 지형면, 계단 모양 = 해안단구. 자연지리는 이렇게 키워드+키워드=지형 공식처럼 머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

정 선지가 평가원의 낚시 선지인데, 파식대는 해안단구와 관련된 지형이 맞는데, 지반 침강이 아니다. 지진이나 자연침하로 인해서 지반이 꺼지는게 지반 침강인데, 바다에 있는 파식대가 지반이 꺼지면 저렇게 단구모양으로 나올 리가 없다. 이런 선지는 꼼꼼이 다시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낚시 선지가 많다.

#15.

복합 비교( A,B,C,D 가,나,다 다 맞혀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단일비교 문제인데 지표는 두 개 줬다. 이럴 땐 어쩐다? 쉬운 지표 하나로 우직하게 뚫는다. 딱 훑어보고 발 면적 비율 보고서 제주->경북->전남 넣고 시작하면 된다. 항상 쉬운 지표 보이면 먼저 사용하자. 특수값은 물론이고.

ㄷ. 선지가 주목할만 한데 전체 농가 수를 대놓고 비교를 시킨다. 물론 제주와 전남이라는 극단적인 값이지만.

+이제 EBS와 평가원의 출제기조 상 전업 농가 비율과 전체 농가 수를 대놓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다. 아마 출제 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둘 다 경북>전남이다.

#16.

세 지역은 안동 의성 구미인데, 의성은 마늘 빼고는 시체인 곳이기 때문에 평가원도 학생들이 알거라고 낸 문제가 아니다. 그냥 전자 공업 도시인 구미(평가원이 경북에서 가장 사랑하는 곳이다.)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있는 경북도청 소재지인 안동을 학생들이 위치를 알고 있냐 체크한 것뿐이다. 그게 아니어도 어이없게 시력테스트 마냥 ③ 선지에서 노령화 지수 비교시켜서 허무하게 낸 것은 당연히 쉽게 내려고 역지로 만든 것이다. 원래는 ①,② 번 선지처럼 대놓고 그 지역의 특성을 물을 수 있는 선지 + 조금 생각을 해야 하는 자료 해석 선지로 만드는 것이 깔끔한 수능틱한 문제일 것이다.

+ 오른쪽 지표는 진짜 모를까봐 저거 보고 도시 특성 구분하라는 것인데, 안 줘도 되는 지표라고 생각한다.

#17.

북한이랑은 농업, 에너지, 교통, 기후는 직접 비교가 가능하다. 꼭 까먹지 말고 공부를 하자. 우리나라는 옥수수 드럽게 안하고(거의 다 사료용 수입) 북한은 짱 많이 한다. 를 까먹지 말자. 그럼 에너지는? 북한은 수력 짱짱맨. 교통은? 북한 도로랑 자동차 많이 없어. 이렇게 쉽게 쉽게 키워드와 묶어서 외워두자.

+을 같은 선지로 낚시하는 짓은 한국지리에서 평가원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 '관서 지방?...거기에 평야 지대가 있나?' 생각하기 보다는 '음...관북은 산지에다 추우니까 관서쪽에 평야가 있을거고...평야에서는 쌀을 재배하지..ㅇㅋ' 하고 넘어가는게 좋다. 더 확실한건 병 정이 무조건 OUT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깔끔하게 내주는게 평가원이다.

#18.

강원도 출제 너무 많이 된다. 출제 들어가신 분이 강원도 분이신 것 같다.

그만큼 강원도가 소외된 곳이라서 다양한 개발을 노리는 곳이기도 하다.

혹시 모를까봐 적어두지만 강원=강릉, 원주. 경상=경주, 상주, 충청=충주, 청주. 전라= 전주, 나주다. 어원이 된 두 도시들이다.

#19.

기후 알고리즘으로 가볍게 풀 수 있다. 8월 평균 기온이든 1월 평균 기온이든 기온 값이니 아무거나 선택해서 특수값 제거 하면 된다. 1월을 골랐으면 겨울에 제일 추울 고위도 내륙인 서울이 먼저 제거될 것이고, 8월을 골랐으면 저위도 내륙인 대프리카 대구가 먼저 제거될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지표로 남은 두 개 상대 비교. 깔끔하게 풀린다.

#20.

이제 이렇게 안 나올 것이다. 4개 복합비교가 필수다. 꼭 알아야 하는 곳은 영등포, 구로, 금천. 영등포는 사람도 꽤 살고 금융의 핵심. 구로와 금천은 디지털 단지가 위치해 있어 IT와 복합 제조업 시설이 있다.

도봉, 강남, 중구인거 몰라도 된다. 그냥 기공사에서 배웠듯이 도심, 교외, 복합으로 풀면 된다.

+가끔 왜 중구가 지역 내 통근 통학 인구 비율이 높냐고 하는데, 중구는 가뜩이나 사람들도 많이 안 사는데 거기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회사가 근처라서 거기에 이사한 사람들이거나, 오피스텔에 사는 회사원들이다. 그래서 높다.